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 of Playfulness on the Social Skills of Young Children :
A Study of Gender Differences

최명선(Myung Seon Choi)¹⁾

김지혜(Ji Hye Kim)²⁾

ABSTRACT

This study examined gender differences of the effect of playfulness on the social skills of young children. The subjects were 242 4- to 6-year-old children at five nursery schools and kindergartens. Results showed that playfulness influenced social skills of young children. In particular, young children's playfulness was a more effective variable of assertion than self-control, cooperation and responsibility. Cognitive spontaneity and social spontaneity were the most effective variable of social skills. Playfulness had variable influences on social skills by gender: Among boys, playfulness was a less effective variable of cooperation than the other variables of social skills. Among girls, playfulness was a less effective variable of self-control than other variables of social skills.

Key Words : 놀이성(playfulness), 사회적 기술(social skill), 성차(gender difference).

I. 서 론

최근에 들어서 유아의 놀이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그에 따라 놀이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되고 놀이를 통한 교육과 놀이를 하나의 치료적 도구로 보는 놀이치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놀이는 유아에게 여러 긍정적인 효과를 준다. 유

아는 놀이를 통해 그들의 생각과 감정을 표현하고 자기조절과 반성적 사고를 발달시킬 수 있으며 점차 또래와의 놀이를 통해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킨다(Sutton-Smith, 1971). 또한 놀이를 잘하는 아동은 다른 사람을 잘 배려하고, 잘 대해주며, 잘 도와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친사회적인 특성으로 인해 친구들 간에 인기가 있고, 친

¹⁾ 동신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

²⁾ Welltree 아동상담센터 전임상담원

Corresponding Author : Ji Hye Kim, Welltree child guidance clinic, 57-18, Sinpyen-dong, Gu-mi, Kyungbuk, Korea
E-mail : wsalt@naver.com

구들과 잘 어울리고, 주도적이며, 협동을 잘하는 긍정적인 발달을 보여주고, 정서적인 특성에서도 항상 잘 웃으며, 표정이 다양하고 감정 표현을 적절하게 한다(김영희, 2002). 놀이는 유아의 모든 생활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고, 놀이를 통해 주변세계를 접촉하고 또래 관계를 형성하며, 잠재의식 속에 숨어 있는 가능성을 표출하게 하여 유아의 발달-신체, 사회, 인지, 언어, 정서에 영향을 미친다(류자혜, 2002).

이와 같이 놀이가 강조됨에 따라서 유아가 놀이를 하게 하는 핵심요인인 놀이성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고 있다. 즉 놀이성이란 행동을 일으키는 성향이나 태도이며 놀이자의 특성으로서 놀이의 질적 특성을 나타내는 심리학적 구인이라고 연구자들(Barnett, 1990; Bundy, 1998; Lieberman, 1977; Rogers, Meeks, Impara, & Frary, 1991; Singer & Rummo, 1973; Singer, Singer & Sherrod, 1980)은 설명하고 있다. 유아의 놀이성은 유아가 자신이 속해 있는 주변 세계를 이해하고 그들의 느낌을 조절하고 다른 사람의 정서에 감정이입을 하며 전인적인 인간으로 성장하는데 필요한 태도나 성향이다(Matthews, 1982). 또한 놀이성은 놀이에서의 인지적, 사회적 및 성격적 측면을 뒷받침 해 주는 특성이라 할 수 있으며, 놀이에 얼마나 자발적으로 참여하느냐에 따라 그 차이가 나타나게 된다. Lieberman(1977)은 놀이성을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으로 나누었고 개인의 인성특질로서 유아의 놀이에서 행동적으로 관찰되어 후의 발달관계와 연결된다고 하였다(류자혜, 2002). 놀이성은 유아의 전인적 발달의 요소인 인지(고소영, 2003; 송민영, 1998; 유애열, 1994; 이양아, 2001; 한미현, 2002), 정서(백수정, 2003; 한미현, 2002), 사회(김근희, 2006; 최수연, 2003)발달에 영향을 미친다. 즉 유아의 사회적 기술의 형성에

놀이성은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기의 대인간 상호작용의 기회감소는 유아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관계형성에 필요한 기술이나 행동양식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어렵게 하고 있다. 유아들이 보여주는 부정적인 행동 양식과 부적절한 언어사용 등은 일면 다른 사람들과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기술과 행동에 대한 학습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람들과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위해 유아들이 학습해야 할 중요한 것으로 돕기, 나누기, 협력하기 같은 친사회적 행동과 다른 사람들과 원활한 인간관계를 형성하는데 필요한 사회적 기술의 습득이 제안되고 있다(윤경선, 2003).

아동의 사회성 발달을 대표하는 개념으로 사회적 기술(social skills) 또는 사회적 능력(social competency)을 들 수 있다. 사회적 기술이란 대인관계에서 적절하고 유용한 정보를 정확하게 선택하는 능력, 적절한 목표 지향적인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 타인과 좋은 관계를 최대한 유지하도록 언어와 비언어적 행동을 구사하는 능력이다(Bedell & Lennox, 1997).

전반적인 사회적 행동의 효용성은 사회적 능력이라는 용어로 사용하며, 그 사회적 능력을 판단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을 사회적 기술이라 한다. 즉 사회적 기술은 의미 있는 타인이 한 개인의 사회적 능력을 평가하는 구성요소의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본다 (Gresham & Elliot, 1990). 또한 사회적 능력 무의 판단기준으로 구체적인 사회적 행동의 출현유무를 부호화할 할 때, 사회적 기술(social skill)이란 용어로 대체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유아가 사회적으로

유능하다는 것은 어떤 사회적 과제 속에서 적절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술의 목록을 얼마나 습득하고 있는지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정계숙·문성숙, 1998).

놀이와 사회성 발달에 관해서 Rogers와 Sawyers (1990)는 유아들이 놀이를 통해 다른 사람의 관점을 추론함으로써 물리적 지식뿐만 아니라 사회적 지식을 확장시키고 또래들간에 공유된 경험을 발달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Hurlock (1978)은 놀이의 사회성 발달에 대한 기능을 자아통찰의 발달, 사회적인 학습, 적절한 성역할을 하기 위한 학습, 바람직한 인격의 발달 네 가지로 제시한다.

이를 뒷받침하는 연구들을 살펴보면 놀이성은 사회적 능력, 사회성, 적응능력, 사회성숙도 등 아동의 대인관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를 구체적으로 보면 놀이성이 좋은 유아는 사회적 능력 중 지도력과 유능성이 좋고 불안정성이 낮고(이경실, 1997), 사회성숙도 중 사회화능력이 좋고 즐거움을 잘 느낀다고 하였다(최수연, 2003). 김영희(2002)는 놀이를 잘 하는 아동이 또래에 의해 긍정적으로 인식되어서 아동의 사회성 발달과 놀이성이 관련이 있음을 제시해 주었다. 또한 이중강(2004)의 놀이성과 생활능력간의 관계연구에서 모든 놀이성의 하위변인과 유아의 생활능력 중 하나인 사회적 능력이 높은 상관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김근희(2006)의 연구에서 신체적 자발성은 사교성과 친사회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은 사교성, 친사회성과 주도성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성별차이를 밝힌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놀이성의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선행연구에서 연구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소영, 2003; 김영희, 1995; 박화윤·마지순·천은영, 2004; 백수정, 2003; 유애열, 1994; 장정아, 1993; Barnett & Kleiber, 1982; Dipietro, 1981; Smith & Daglish, 1977; Tauber, 1979). 먼저 남아가 여아보다 놀이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들을 살펴보면 백수정(2003)의 연구에서 놀이성의 하위 요인 중에서 신체적 자발성이 남아가 여아보다 더 높게 나타났고 박화윤·마지순·천은영(2004)의 연구에서는 유머감각에서 남아가 여아보다 의미있게 높게 나타났다.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유형을 살펴 본 김영희(1995)의 연구에서는 남아의 경우 적극적 놀이형이 가장 많았고 여아의 경우는 소극적 놀이형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고소영(2003), 장정아(1994)의 연구에서는 놀이성이 성별에 따라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사회적 기술의 성별차이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하지만 사회적 기술의 성차에 관한 연구가 부족하여 사회성 관련 변인에서 성차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고자 한다. 지도력, 유능성, 과민성, 불안정성을 하위변인으로 하여 사회성을 연구한 이경실(1997)의 연구에서는 유아의 사회성이 성에 따라서 차이가 없다고 하였다. 반면에 사회적 능력을 연구한 박성연(1992)과 이병림(1987)의 연구에서 하위변인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여아가 남아보다 사회적 능력이 높게 나타났다. 최경순(1994)과 임말자·최경순(2003)의 연구에서는 지도력과 방해성이 남아가 높게 나타나고 불안정성은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유아의 사회성에 관한 성차의 연구에서 일관된 결과를 보이지 않아서 유아의 사회성 즉 사회적 기술에 대한 성차에 대하여 연구해 보고자 한다.

위에서 살펴본 연구들은 놀이성과 사회적 능

력, 사회성의 발달, 적응능력 등에 주로 초점을 맞추어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사회적 능력과 사회성의 중요한 설명 요인인 사회적 기술과 놀이성의 관계를 밝힌 연구는 그리 많이 수행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의 각 하위요인이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이 사회적 기술의 하위요인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또한 이러한 영향력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도 밝혀 보고자 한다.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이 유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을 통합적이면서도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유아가 지니고 있는 놀이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그들의 놀이를 바람직하게 지도하고 교육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부모나 교사가 유아의 놀이성을 기초로 그들의 사회적 능력을 효과적으로 파악하고 이해하고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돕고 적응력을 길러주며 부적응을 방지하기 위해 놀이성을 증진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중요하다는 것에 대한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에 의해 다음과 같은 연구 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문제 1>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성별에 따라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력은 다른 양상을 보이는가?

2-1.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은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2-2. 남아와 여아의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서울·경기 지역에 유아교육 기관(어린이집, 유치원)에 재원중인 만 4세~6세 유아들이다. 임의 표집 한 5개의 유아교육기관에 재학 중인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여 340부의 질문지를 배포하였다. 이 중 회수되지 않은 자료와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를 제외한 후, 총 242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2. 측정도구

1) 유아의 놀이성 척도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을 측정하기 위해 Barnett(1990)이 제작한 ‘유아의 놀이성 측정도구(Children’s Playfulness Scale)’를 유애열(1994)이 번안하고 김미숙(2001)이 부모용으로 수정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의 문항별 반응양식은 Likert식 5점 척도로서,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부터 ‘정말 그렇다’의 5점까지 반응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점수가 높을수록 그 요인의 성향이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 본 측정도구는 Lieberman(1977)의 놀이성 정의를 기초로 하여 놀이성 하위변인으로 밝혀진 다섯 가지 변인, 즉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으로 나뉘어 측정하는 것으로 이 척도는 총 25문항이다. 측정도구의 구체적인 하위영역별 구성내용과 본 연구에서 구해진 신뢰도(Cronbach’s α)는 <표 1>에 제시된 바와 같다.

2) 유아의 사회적 기술

유아의 사회적 기술은 유아용 사회적 기술 평정 척도(Social Skill Rating System for Preschool

<표 1> 놀이성의 하위영역 별 구성내용,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계수)

하위영역	구 성 내 용	문항수	신뢰도
신체적 자발성	놀이 할 때 신체기관 간의 협응이 잘 되고 신체를 적극적으로 움직이며 동적인 것을 좋아한다.	4	.74
사회적 자발성	놀이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협동적이며 친구를 쉽게 사귀고 놀이감을 함께 나눈다.	5	.83
인지적 자발성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이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이다.	6	.78
즐거움의 표현	놀이할 때 기쁨이나 즐거움, 열성, 성취에 대한 만족감, 미소, 독백, 과시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롭다.	5	.82
유머감각	장난기가 많고 우습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잘하고 익살스러우며 우스꽝스런 이야기에 잘 웃는다.	5	.86

Level)를 사용하고자 한다. 사회적 기술적도는 Grasham과 Elliot(1990)의 SSRS(Social Skill Rating System)를 서미옥(2004)이 부모용 척도와 교사용 척도로 변안한 것 중 부모용 척도를 사용하고자 한다. 이 척도는 모두 3점 Likert 척도로 되어 있다. 구체적인 하위영역별 신뢰도와 문항 구성은 <표 2>에서 제시된 바와 같다.

이 척도는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4 가지 하위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3. 연구절차

1) 본조사

본 조사는 2005년 9월 10일부터 2005년 10월 10일 까지 한 달에 걸쳐서 실시하였다. 서울 경

기지역에 있는 유치원 2곳과 어린이집 3곳에 재학 중인 만4, 5, 6세의 유아의 부모34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질문지는 본 연구자가 유아교육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교사를 통하여 부모에게 전달하고 15일 뒤에 다시 방문하여 수거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2)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AS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먼저 각 척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다음으로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각각 하위영역간의 상관성이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

<표 2> 사회적 기술의 하위영역 별 구성내용, 문항수, 신뢰도(Cronbach's α계수)

하위영역	구 성 내 용	문항수	신뢰도
주 장 성	동료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	11	.80
자 기 통 제	놀이에서 자신의 순서를 지키거나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	7	.72
협 력 성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	6	.85
책 임 성	맡은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것	8	.76

였다. 또한 성별에 따른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였고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1.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이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Pearson의 적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와 같다.

<표 3>에서 보듯바와 같이 놀이성의 모든 하위변인인 신체적 자발성, 사회적 자발성, 인지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 유머감각은 사회적 기술의 대부분의 하위변인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체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은 주장성, 협력성, 책임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만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유머감각은 자기통제와는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인다.

<표 3>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

변 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신체적 자발성	.38***	.10	.15*	.13**
사회적 자발성	.59***	.27***	.28***	.26***
인지적 자발성	.61***	.45***	.30***	.37***
즐거움의 표현	.46***	.30***	.21***	.32***
유머감각	.45***	.11	.25***	.30***

*.01<p<.05 ** .001<p<.01 ***p<.001

1)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표 4>는 전체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놀이

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 중에서 주장성(F=43.56, <.001)을 가장 잘 설명한다. 즉 놀이의 자발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놀이성은 동료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히 표현하는 것과 같은 주장성을 잘 설명하는 변인이다.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과 자기통제, 협력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과 협력성, 책임성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즐거움의 표현은 사회적 기술 중 자기통제에 대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 중 책임성($\beta=-.16$, <.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신체를 왕성하게 움직이며 자발적으로 놀이하는 유아는 사회적 기술에서 책임성이 부족할 것이라고 설명할 수 있다.

<표 4>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변 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β	β	β	β
신체적 자발성	-.02	-.13	-.08	-.16*
사회적 자발성	.37***	.19*	.19*	.10
인지적 자발성	.38***	.09	.18*	.23**
즐거움의 표현	-.02	.27**	-.03	.13
유머감각	.10	-.10	.13	.13
모델적합도 (F값)	43.56***	7.30***	6.47***	9.78***
누적 R ²	.47	.12	.10	.15

*.01<p<.05 ** .001<p<.01 ***p<.001

2. 성별에 따른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1)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차이

(1)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인지적 자발성 ($t=-2.30,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는데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즉 여아가 남아보다 인지적으로 자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유아의 성별에 따른 놀이성의 차이

변 인	남	여	전체	t
	M (SD)	M (SD)	M (SD)	
신체적 자발성	16.00 (2.79)	16.23 (2.47)	16.12 (2.64)	-.69
사회적 자발성	18.90 (3.55)	19.23 (3.29)	19.74 (3.42)	-.77
인지적 자발성	21.39 (3.88)	22.50 (3.55)	21.93 (3.76)	-2.30*
즐거움의 표현	20.63 (3.05)	21.30 (2.58)	20.96 (2.85)	-1.83
유머감각	19.25 (3.55)	19.14 (3.36)	19.20 (3.45)	.24

* $p<.05$ ** $p<.01$ *** $p<.001$

(2)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이를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변인은 성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2) 성별에 따른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위의 결과에서는 놀이성은 남아와 여아 간에 차이가 있으나 사회적 기술에는 성별간에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남아와 여아간에

〈표 6〉 유아의 성별에 따른 사회적 기술의 차이

변 인	남	여	전체	t
	M (SD)	M (SD)	M (SD)	
주장성	22.34 (3.43)	22.77 (3.46)	22.59 (3.88)	-0.74
자기통제	16.90 (2.35)	17.08 (2.06)	16.99 (2.48)	-0.57
협력성	10.99 (2.50)	11.50 (2.60)	11.24 (2.88)	-1.40
책임성	14.78 (2.35)	14.89 (2.37)	14.84 (2.60)	-0.33

두 변인간의 영향력은 다를 것으로 추측할 수 있으므로 아래에서는 남아와 여아의 측정치를 분류하여 각각의 변인간의 관계와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남아와 여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관계는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7>와 같다.

하위변인에 별로 성별에 따른 상관관계를 살펴보면 신체적 자발성의 경우 남아는 주장성($r=.28, p<.01$)과 자기통제($r=.19, p<.05$)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인데 반해 여아의 경우에는 주장성($r=.51, p<.001$)에서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사회적 자발성은 남아와 여아 모두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과 책임성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보였다. 즉 사회적 자발성이 좋은 남, 여 유아 모두 주장적이고 맡은 일을 잘 수행하고 순서를 잘 지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적 자발성의 경우는 남아는 주장성($r=.63, p<.001$), 자기통제($r=.31, p<.001$), 협력성($r=.26, p<.01$)과 책임성($r=.2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인데 반해서 여아는 주장성($r=.58, p<.001$)과 협력성

<표 7> 성별에 따른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상관계수

	성별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신체적 자발성	남아	.28**	.19*	.15	.13
	여아	.51***	-.02	.13	.13
사회적 자발성	남아	.62***	.32***	.20*	.24**
	여아	.56***	.20*	.36***	.27**
인지적 자발성	남아	.63***	.31***	.26**	.29***
	여아	.58***	.17	.32***	.35***
즐거움의 표현	남아	.50***	.39***	.23**	.39***
	여아	.40***	.18	.16	.22*
유머감각	남아	.42***	.22*	.23**	.37***
	여아	.50***	-.02	.28**	.21*

*.01<p<.05 ** .001<p<.01 ***p<.001

($r=.32, p<.001$), 책임성($r=.51, p<.001$)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즐거움의 표현 역시 남아의 경우는 주장성($r=.50, p<.001$), 자기통제($r=.39, p<.001$), 협력성($r=.23, p<.01$)과 책임성($r=.39,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서 여아는 주장성($r=.40, p<.001$)과 책임성($r=.22,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유머감각도 인지적 자발성과 유사하게 나타났는데 남아의 경우는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변인인 주장성($r=.42, p<.001$), 자기통제($r=.22, p<.05$), 협력성($r=.23, p<.01$)과 책임성($r=.37, p<.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정적 상관을 보이는데 반해서 여아는 주장성($r=.50, p<.001$)과 협력성($r=.28, p<.01$), 책임성($r=.21, p<.05$)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다.

즉 남아의 경우 대부분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협력성(.15), 책임성(.1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여서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의 협력

성, 책임성과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남아의 놀이성은 전체 유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협력성과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만 비교적 낮은 상관을 보인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여아의 경우 대부분은 높은 상관을 보이지만 유아의 신체적 자발성과 자기통제(-0.2)와 협력성(.15), 책임성(.13)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여서 여아의 신체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의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과 상관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지적 자발성(.17), 즐거움의 표현(.18), 유머감각(-.20)은 사회적 기술 중 자기통제와도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상관을 보인다. 즉 여아의 놀이성은 전체 유아에 비해서 자기통제의 상관이 통계적으로 비교적 낮은 상관과 무의미한 상관을 보인다.

(1)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표 8>는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남아의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남아의 놀이성은 주장성($F=25.42, <.001$)을 통계적으로 가장 높게 설명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자기통제($F=5.04, <.001$)와 책임성($F=6.63, <.0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 협력성($F=2.18, <.05$)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지만 다른 변인에 비해서 낮은 수준의 유의함을 보인다. 즉 남아의 놀이성은 아동이 집단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인 협력성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남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

〈표 8〉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변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β	β	β	β
신체적 자발성	-.14	-.06	-.02	-.17
사회적 자발성	.42***	.16	.07	.04
인지적 자발성	.38***	.03	.13	.15
즐거움의 표현	.04	.33*	.05	.24
유머감각	.09	-.02	.11	.20
모델적합도 (F값)	25.42***	5.04***	2.18*	6.63***
누적 R ²	.49	.14	.05	.18

*.01<p<.05 ** .001<p<.01 ***p<.001

발성($\beta=.42, <.001$)과 인지적 자발성($\beta=.38, <.001$)은 주장성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하는 변인을 알 수 있다. 즉 사회적, 인지적으로 자발적인 남아는 동료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주장성이 좋다는 것이다.

남아의 놀이성 중 즐거움의 표현은 자기통제($\beta=.33, <.05$)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놀이 중 기쁨과 같은 기분을 잘 표현하는 유아가 자기 통제 능력도 좋다는 것이다.

(2) 여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표 9〉는 여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아의 놀이성을 독립변인으로 하고 사회적 기술을 종속변인으로 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따르면 여아의 놀이성은 주장성($F=18.91, <.001$)을 통계적으로 가장 잘 설명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협력성($F=5.05, <.001$)와 책임성($F=3.83, <.01$)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 자기통제($F=3.14, <.05$)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설명변인이지만 다른 변인에 비해서 적게 설명하는 설명변인으로 나타났다. 즉 여아의 놀

〈표 9〉 여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변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
	β	β	β	β
신체적 자발성	.14	-.23	-.21	-.02
사회적 자발성	.29**	.27*	.33**	.19
인지적 자발성	.35***	.18	.23	.32*
즐거움의 표현	-.06	.16	-.10	.01
유머감각	.10	-.21	.16	.01
모델적합도 (F값)	18.91***	3.14*	5.05***	3.83**
누적 R ²	.44	.09	.15	.11

*.01<p<.05 ** .001<p<.01 ***p<.001

이성은 놀이에서 자신의 순서를 지키거나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인 자기통제에 대한 설명력이 다른 것에 비해서 약함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여아의 놀이성 중 신체적 자발성은 사회적 기술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유아의 놀이성 중 사회적 자발성은 주장성($\beta=.29, <.01$), 자기통제($\beta=.27, <.05$), 협력성 ($\beta=.33, <.01$)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설명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남아에 비해서 여아의 사회적 자발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이 많은데 사회적 자발성이 좋은 여아는 자기 주장적이고 자기통제를 잘하고 협력성이 좋음을 알 수 있다.

인지적 자발성은 주장성($\beta=.35, <.001$)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가장 잘 설명하고 그 다음으로 책임성($\beta=.31, <.05$)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설명한다. 인지적으로 자발적인 여아는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맡은 일을 잘 하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즐거움의 표현과 유머감각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여아의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의 목적은 유아의 놀이성의 각 하위변인이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또한 성별에 따라서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제기한 연구문제의 순서에 따라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의 상관을 먼저 살펴보면 놀이성의 대부분 하위변인은 사회적 기술의 대부분 하위변인과 상관이 있다. 이러한 결과는 강희숙(1989)의 연구에서 역할 놀이가 유아의 사회성 발달을 촉진시키고, 역할놀이 집단의 유아들이 사회성 검사 점수도 높고 교우관계의 폭도 넓다고 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김영희(1998)의 연구에서도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자 하며 놀이감을 융통성 있게 사용하고 독창적인 유아일수록 정서상태가 안정적, 긍정적이고, 또래간의 적응이 원활하며, 자기 주장적, 주도적, 독립적이며, 자신감이 있고 일과에 대한 적응이 잘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는 유아의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의 모든 하위변인에 영향을 미치고 놀이성은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을 가장 많이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놀이성의 하위변인 중 신체적 자발성은 책임성에 대해서 부적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적 자발성이 다른 변인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신체적 자발성이 좋은 아이들이 놀이방해가 많이 일어난다는 연구(박화윤·마지순·천은영, 2004)와 신체적 자발성이 좋은 아동이 사교성과 친사회성이 부족하다는 연구(김근희, 2006)에 의해 뒷받침 될 수 있다. Billman과

McDevitt(1980)이 유아의 기질적 특성 중 활동수준과 또래 간 상호작용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활동수준이 높은 유아가 또래와 조금 더 다투기는 하지만 사교적이었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사회적 자발성은 주장성과 자기통제, 협력성에 영향을 미치고 인지적 자발성은 주장성과 협력성, 책임성에 영향을 미쳐서 사회적 기술의 개발에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Connolly & Doyle (1984)의 연구에서 역할놀이 경험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 가운데 나눠주기 행동과 돕기 행동을 증진시켰다고 하여서 다양한 역할을 해보면서 놀이를 하는 인지적 자발성이 협력성과 책임성 등 사회적 기술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러한 결과는 최윤정(2001)의 연구에서 사회성 발달 중 사회적 기술은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사회적 자발성, 즐거움의 표현과 가장 높은 정적 상관을 나타내었고 인지적 자발성과 유머감각과도 상관을 보여서 본 연구의 결과를 뒷받침한다. 이는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은 사교성과 주도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김근희, 2006)에 의해서 지지된다.

특히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좋은 아동이 주장성이 가장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놀이성이 좋은 유아는 동료에게 칭찬을 하거나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는 능력이 뛰어난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에 신체적 자발성으로 움직이고 동적인 것을 좋아하는 유아는 맡은 일을 적절히 수행하는 책임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최근에 소극적이고 친구들과의 사이에서 자신의 의견을 정확하게 표현하는 못하는 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이 종종 있다. 이런 아동에게 놀이성 특히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을 개발시켜 주는

것이 좋은 교육 및 치료방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해 준다.

둘째, 남아와 여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기술의 성차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유아의 성별과 따라 놀이성은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놀이성의 하위요인 중 인지적 자발성에서만 여아가 남아보다 높게 나타났다. 백수정(2002), 송민영(1998)과 유애열(1994)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체의 놀이성에서 의미있는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은 유사한 결과이다. 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여아의 인지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났는데 반해서 선행연구에서는 남아의 신체적 자발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연구들과 일치하지 않고 인지적 자발성이 높게 나타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추측해 볼 수 있다. 지성애(1996)의 연구에서 여아가 역할놀이 영역에서 더 성숙된 유형의 놀이를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인 자발성이 여아가 더 좋은 것을 설명해 주고 있다.

다음으로 유아의 사회적 기술이 성별에 따라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면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인 주장성, 자기통제, 협력성, 책임성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것은 사회성에서 성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 이경실(1997)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이다. 그러나 여아의 사회적 적응능력이 좋다고 한 박성연(1992)과 이병림(1987)의 연구와 결과가 다른 결과를 보인다. 최경순(1994)의 연구에서 지도력과 방해성이 남아가 높게 나타나고 불안정성이 여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각기 다른 결과를 보인다. 연구자마다 사회적 능력 척도와 내용이 달라서 사회적 기술과 능력의 성차를 면밀하게 비교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 보다 일관성 있는 비교를 하기 위해 사회적 기술에 초점을 둔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면 전체유아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자발성과 인지적 자발성이 좋은 남아가 사회적 기술 중 주장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즐거움의 표현을 잘하는 남아가 자기통제 능력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놀이할 때 기쁨이나 즐거움, 미소 등을 표현하는 것이 자유로운 남아가 자신의 순서도 잘 지키고 갈등 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김지혜(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인데 정서적인 표현과 수용능력의 하나인 즐거움의 표현능력이 좋고 정서적으로 건강한 아이들이 갈등상황에서의 문제해결 능력 즉 자기통제 능력이 좋을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의 각 하위변인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보면 주장성과 자기통제, 책임성에 대한 설명력이 크지만 협력성에 대한 설명력이 비교적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양숙(1993)의 사회적 능력 연구에서 여아보다 남아에게서 비협조성이,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협력성이 높게 났고 배선영(1999)에 따르면 여아가 남아보다 갈등상황에서 절충 및 협력 전략을 더 많이 사용한다고 한다. 이와 같이 남아의 경우는 사회적상황이나 갈등상황에서 협력하기 보다는 자기주장이나 자기통제의 방법을 주로 활용하기 때문에 협력성보다는 다른 사회적 기술이 개발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여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면 놀이할 때 친구의 접근에 쉽게 반응하고 친구를 잘 사귀는 사회적 자발성이 좋은 유아가 주장성과 자기통제, 협력성이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할 때 주도적이고 다양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자발성이 좋은 여아가 자신의 의견을 적절하게 표현하면서도 맡은 일을 적절하게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아의 놀이성은 남아와 달리 사회적 기술의 하위변인 중 주장성과 협력성, 책임성보다 자기 통제에 대한 설명력이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지혜(2006)의 놀이성과 정서능력의 성별차이 연구에서 정서조절능력에서만 성별에 따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놀이성이 정서능력 중에서 정서조절에 대한 설명력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와 같이 놀이에서 자신의 순서를 지키거나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인 자기통제에도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같은 여아와 남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양상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아의 경우에는 놀이성이 좋은 유아가 주장성, 자기통제, 책임성과 같은 사회적 기술은 좋지만 집단 활동에 잘 참여하고 자신의 일을 스스로 하고 다른 사람을 돕는 능력인 협력성은 부족하다. 반면에 여아의 경우는 놀이성이 좋은 여아가 사회적 기술은 좋지만 갈등상황에서 적절하게 감정을 조절하는 자기통제 능력은 부족하다.

또한 남아와 여아가 같이 사회적 자발성이 좋더라도 남아의 경우는 주장성에만 영향을 미치지만 여아의 경우는 주장성과 자기통제, 협력성에 영향을 미쳐서 여아의 경우는 사회적 자발성을 개발시켜주는 것이 사회적 기술에 더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남아의 영우는 즐거움의 표현을 개발시키면 자기 통제능력이 개발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 및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표집 대상과 지역이 한정되어 있어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으로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점이 있다. 둘째, 본 연구가 유아의 부모를 대상으로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자녀에 대한 편견이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음으

로 후속연구에서 부모와 교사의 보고를 함께 하여 검증해 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이다. 셋째, 유아의 놀이성이 정서·사회적 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한 통합적인 이해를 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본 연구는 유아의 놀이성이 사회적 기술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았는데 차후 연구는 학령기 아동의 놀이성이 정서능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서 발달에 따라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강희숙(1989). 교육프로그램에 따른 유아의 사회성 발달 비교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고소영(2003).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의 관계.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근희(2006). 유아의 놀이성과 또래 유능성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미숙(2001). 교사가 지각한 5세 유아의 놀이성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양숙(1993). 어머니의 취업태도와 유아의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희(2002). 놀이를 잘하는 아동의 특성에 대한 연구. **놀이치료연구**, 5(1), 3-16.
- 김영희(1998). 유아의 놀이성 및 대인문제해결력과 적응과의 관계. **놀이치료연구**, 1(1), 24-36.
- 김영희(1995). 아동의 놀이성 군 확인과 관련 변인 탐색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지혜(2006). 유아의 놀이성이 정서능력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류자혜(2002). 유아의 놀이성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성연(1992). 어머니의 결혼만족도 및 양육행동과 아동의 능력발달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한국문**

- 회연구원 **논총 사회과학논집**, 61(2), 305-329.
- 박화윤 · 마지순 · 천은영(2004). 유아의 놀이성과 상호작용적 또래놀이에 관한 연구. **열린유아교육연구**, 9(4), 285-298.
- 배선영(1999). 아동의 친구관계의 질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수정(2003). 부모 화합도와 아동의 정서지능 및 놀이성과의 관계. 영남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서미옥(2004). 한국판 취학전 아동용 사회적 기술 척도(K-SSRS : 교사평정용, 부모평정용)의 타당화 연구. **유아교육연구**, 24(2), 223-242.
- 송민영(1998). 유아의 창의성과 놀이성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애열(1994). 유아의 상상놀이와 교사개입에 관한 관찰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경선(2003). 사회적 갈등상황에 관한 대안 찾기 활동이 유아의 친사회적 행동과 사회적 기술에 미치는 영향. **한국유아교육학회 : 2003 연차 학술대회**, 629-639.
- 이경실(1997). 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적 능력과의 관계. 이화여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병림(1987). 아동의 생활능력에 대한 부모와 교사의 지각.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이양아(2001). 장애유아와 일반유아의 놀이 특성 및 교사 개입 양상에 대한 비교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중강(2002). 어머니 및 유아의 놀이성과 유아의 생활능력간의 관계. 경희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말자 · 최경순(2003). 유아의 성, 연령, 기질 및 가정환경자극과 유아교육기관적응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3(1), 189-207.
- 장정아(2002). 동화를 통한 역할놀이가 유아의 정서지능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정계숙 · 문성숙(1998). 사회적 증진 프로그램의 유아 사회적 기술 향상 효과에 대한 연구. **부산대학교 사범대학 사대논문집**, 35(1), 55-81.
- 지성애(1996). 연령, 성, 활동영역이 유아의 사회적 놀이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16(1), 83-102.
- 최경순(1994). 아동의 사회적 능력 및 관련변인에 관한 연구. **신라대학교 논문집**, 38, 263-291.
- 최수연(2003). 영재유아와 일반유아의 놀이성과 사회성숙도에 대한 차이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미현(2002). 유아의 창의성, 놀이성 및 정서지능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arnett, L. A. (1990). Playfulness : definition, design, and measurement. *Play & Culture*, 3, 319-336.
- Barnett, L. A., & Kleiber, D. A. (1982). Concomitant of playfulness in early childhood cognitive abilities and gender.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5, 141-147.
- Bedell, J. R., & Lennox, S. S. (1997). *Handbook for communication and problem-solving skills training*. John Wiley & Sons, Inc.
- Billman, J., & McDevitt, S. (1980). Convergence of parent and observer ratings of temperament with observation of interaction in nursery school. *Child Development*, 51, 395-400.
- Bundy, A. C. (1998). *Test of playfulness(ToP) manual*. Fort Collins, CO : Colorado State University.
- Connolly, J. A., & Doyle, A. B. (1984). Relation of social fantasy play to social competence in preschoolers. *Development Psychology*, 20(5), 797-804.
- Dipietro, J. A. (1981). Rough and tumble play : A function of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17(1), 50-58.
- Gresham, F. M., & Elliot, S. N. (1990). *Social skills rating system manual*. Circle Pines, MN : American Guidance Service.
- Hurlock, E. B. (1978). *Child Development*. New York : Macgraw Hill Company.
- Lieberman, J. N. (1977). *Playfulness : It's relationship to imagination and creativity*. New York : Academic Press.

- Mattews, W. S. (1982). Eliminating operational definition : A paradigm case approach to the study of fantasy play. *The play of children*, 56-60.
- Rogers, C. S., Meeks, A. M., Impara, J. C., & Frary, R. B. (1991). Measuring playfulness : *Development of the Child Behaviors Inventory of Playfulness*. Manuscript submitted of publication.
- Rogers, C. S., & Sawyers, J. K. (1990). Play in the lives of children. Washington, DC : NAEYC.
- Singer, D. G., & Rummo, J. (1973). Ideational creativity and behavioral style in kindergarten aged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8, 154-161.
- Singer, J. L., Singer D. G., & Sherrod, L. R. (1980). A factor analytic study of preschooler's play Behavior. *American Psychology Bulletin*, 2, 143-156.
- Smith, P. K., & Daghish, R. (1977). An empirical stud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play and various play criteria. *Child Development*, 56, 1042-1050.
- Sutton-Smith, B. (1971). *Play is Learning*. N.Y : Gardener Press Ins., P.17.
- Tauber, M. A. (1979). Parental socialization techniques and sex differences in children's play. *Child Development*, 50, 225-234.

2006년 4월 30일 투고 : 2006년 7월 19일 채택